QR코드로 간편하게
상상인증권
더 많은 리포트 찾아보기

투자전략 | 2026.03.06

한 눈에 보는 상상인 자산전략

Weekly

Analyst 신얼 | 투자전략 02-3779-3184, e.shin @sangsanginib.com

Analyst 김경태 | 글로벌 전략/디지털자산 02-3779-3427, kt.kim@sangsanginib.com

Analyst 최예찬 | 경제/원자재/외환 02-3779-3519, yc.choi@sangsanginib.com

RA 강혜성 02-3779-3475, hs.kang@sangsanginib.com

상상인증권

CONTENTS

한 눈에 보는 상상인 자산전략

Summary 3

1. 경제 6

2. 주식 8

3. 채권 19

4. 외환 20

5. 부동산 22

Summary

주간 자산시장 동향 & 체크포인트

자산시장을 강타한 중동 전쟁 이슈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점은 중동 전쟁으로의 확산 시나리오

글로벌 투자자들이 진정 회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로 전개되는 미국 & 이스라엘 대 이란의 전쟁 양상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 진입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이후 이란의 전방위적 대응이 나오면서 전쟁의 단기화 가능성은 축소되었다. 또한, 이란의 중동내 미군 기지를 향한 공격이 민간 지역에도 이뤄지면서 중동 국가들의 불안정성과 함께 확전의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보다 우려하는 것은 미국의 이란에 대한 지상군 투입으로 인한 실질적 전쟁으로의 발전과 함께 공격을 당한 중동 국가들의 전쟁 참여로 전개되는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란 간 협상 경과를 지켜볼 필요 존재

지난 주말 전격적인 공습을 통해서 이란의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차남이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지도부 회의를 맞춘 공습에 의해 차기 지도자감이 다수 사망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다. 또한, 이란의 외교관을 향해 조속한 망명 신청을 촉구하면서 새로운 이란 건설을 하라고 강조했다. 이란의 임시 지도체제에서는 항전 의지를 피력하고, 군사력을 보이고 있다. 쉽게 물러서지 않을 흐름이다. 다만, 여러 외신의 속보를 통해서 이란이 제 3국을 통한 미국 정보당국에 협상을 요청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확실한 뉴스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보다 필요하겠다.

유가 및 달러화 강세, 미국 증시 견조세와 대비되는 신흥국 증시 약세

금주 자산시장은 중동 이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 확산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우려에 유가의 급등과 달러화의 반등이 나타난 반면, 기타 통화 및 신흥국 시장은 약세를 보였다. 미국 증시는 반도체, 항공 업종이 약세를 보였으나 방산, 에너지, 디지털 자산의 강세가 이를 상쇄하며 높은 변동성에도 종가기준으로는 견조함을 드러냈다. 주중 발표된 브로드컴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한 점은 약화되었던 AI 투심을 회복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다.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글로벌 증시 대비 YTD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한국 증시는 차익실현 매도세가 가세하며 일간 최대 낙폭 기록을 경신하였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 속 자산군 간 상이한 흐름 확인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이 트럼프의 발언과 호르무즈 해협, 중동 전쟁으로의 확산에 쏠려 있는 가운데 자산시장은 안전자산 선호에 기반함과 동시에 그 동안 약세를 보이던 자산군의 강세와, 상승가도를 달리던 자산군의 포지션 정리 흐름 역시 나타났다. 약세를 보이던 달러와 WTI, 디지털 자산이 강세를 보였고 귀금속 시장이 약세를 보인 점이 대표적이다. 한편, 전통적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미 국채는 주간 발표된 ISM PMI, ADP 고용의 예상치 상회 소식과 함께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강화시킨 점이 매도 압력을 야기하였다.

위험 회피 성향의 확대는 대다수 자산에서 나타나기 마련이었다. 그럼에도 미 국채 시장의 약세와 크립토 시장의 강세장 시현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손익 계산이 철저함을 의미하는 동시에 유동성 자금의 단기적 쏠림이 나타나는 현상이 동시에 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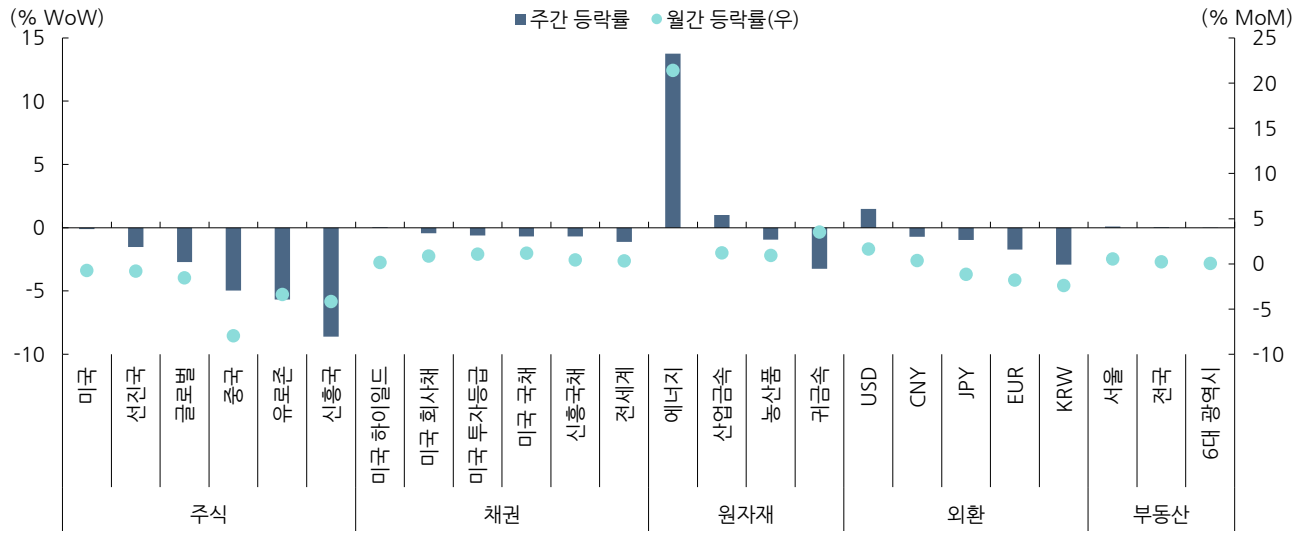
차주 체크 포인트

1) 중동 전쟁 확산 여부
2) 미국 CPI
3) 오라클 실적 발표

차주의 글로벌 자산시장은 미국-이란의 전쟁 우려 속 미국 CPI, 오라클 실적 발표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가장 큰 이슈인 이란에 대한 변수가 자산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 CPI와 오라클 실적 발표가 각각 물가와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킬지를 지켜봐야하겠다. 추가적으로 3월 중 진행될 케빈 워시 인사 청문회는 채권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강달러와 유가 급등 이후의 흐름이 타 자산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판단이 핵심 동인이 되겠다. 미 달러화로 쏠리는 자금은 타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 금융시장의 비우호적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성은 시장 참가자의 투심 위축과 투자의 시계열을 단축시키기에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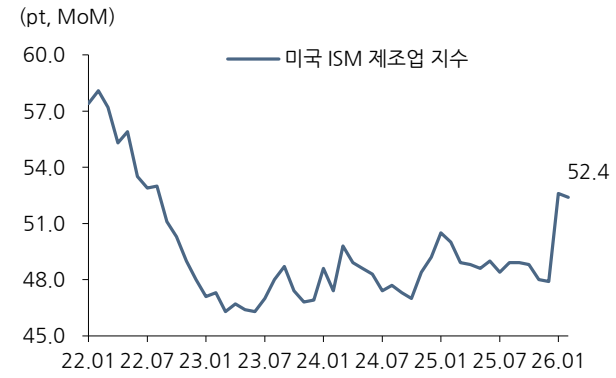
그림 1. 자산별 주간 수익률



자료: Bloomberg, 부동산원, 인포맥스,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경제지표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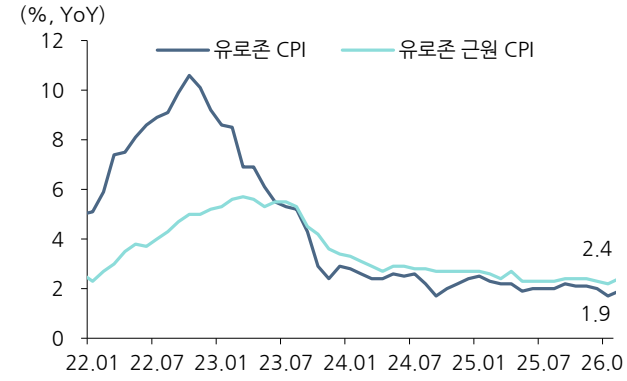
그림 1. 미국 2월 ISM 제조업 지수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 지난 3일(현지시간)에 미 공급관리협회에서 발표한 2월 제조업 PMI는 52.4로, 시장 예상치(51.7pt)를 상회하며 2개월 연속 확장세 유지
- 세부적으로 신규 주문 및 생산 지수의 상승폭이 소폭 감소하며 전월치 대비 0.2pt 하락했으나, 확장세를 지속하며 지수 전체의 상승을 견인
- 물가지수는 70.5pt로, 전월치 대비 11.5pt 급등하며 관세가 지속적으로 비용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음을 확인
- 공급업체 납기지수는 55.1pt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 이는 강한 수요와 더불어 공급망 차질 우려 또한 존재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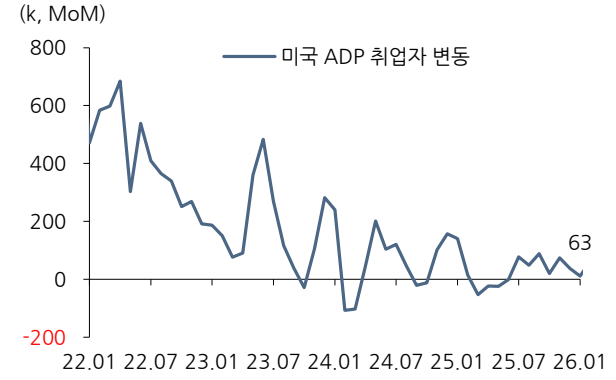
그림 2. 유로존 2월 CPI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 EU 통계청에서 지난 3일(현지시간) 발표한 유로존 2월 CPI는 전년대비 1.9%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와 전월치를 0.2%p 상회
- 변동성이 큰 식품, 에너지, 주류, 담배를 제외한 근원 CPI 또한 전년대비 2.4%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2.2%)와 전월치(2.2%)를 모두 상회
- 유럽중앙은행(ECB)의 목표인 2.0%를 하회하고 있으나, 원유 및 가스 가격 상승, 유로화 약세 등 추가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 존재
- 여기에 중동 전쟁 영향으로 이란의 공격을 받은 카타르의 천연가스 생산 중신 소식에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며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

그림 3. 미국 2월 ADP 취업자 변동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 미 고용정보업체 ADP에서 발표한 미국 2월 민간기업 고용은 전월대비 6만 3천명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5만명)와 전월치(1만 1천명)를 모두 상회
- 세부적으로 교육·헬스케어(5만 8천명)와 건설(1만 9천명)이 큰 폭 증가한 반면 전문 서비스(-3만명)와 제조업(-5천명)은 감소
- 임금 상승률은 전년대비 4.5% 상승. 고용 증가와 더불어 기존 직장에 남아있는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세가 견고하게 지속
- 다만, 고용이 일부 소수 업종에 집중되며 이직으로 인한 임금 인상 효과의 확산은 제한적

1. 경제

4주 이상의 전쟁 지속 가능성을 대비

결국 발현된 미-이란 교전

지난 2/28 미군이 테헤란 핵심 시설을 타격하면서 이란 최고 종교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이란의 반격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당사는 2/26 [미-이란 핵 협상 시나리오와 유가·물가 전망] 리포트를 통해 이란과 미국의 핵 합의 결렬 가능성을 70% 이상으로 제시하며,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은 확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선언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WTI 기준 장중 70달러 후반까지 상승하면서 금융시장의 핵심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 중이다.

4주 이상의 지속 가능성을 대비

시장의 이목은 중동 교전 상황의 장기화 여부에 쏠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기간을 4~5주로 예상했으나, 당사는 해당 사태가 그 이상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판단이다. 신정국가인 이란은 독재국가인 베네수엘라와 다르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 부통령이 승계했으나 베네수엘라 지도부가 빠르게 무력화된 것과 달리, 종교와 신앙심에 기반을 둔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지도자 한 명의 제거로 쉽게 무너지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란의 보복 공격이 사우디,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UAE, 등으로 확대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란의 보복으로 인해 아랍 산유국들의 에너지 인프라와 민간 시설에까지 피해가 발생했다. 사실상 아랍 국가들까지 교전 대상으로 만들며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셈이다. 이는 협상과 타협을 염두에 둔 행동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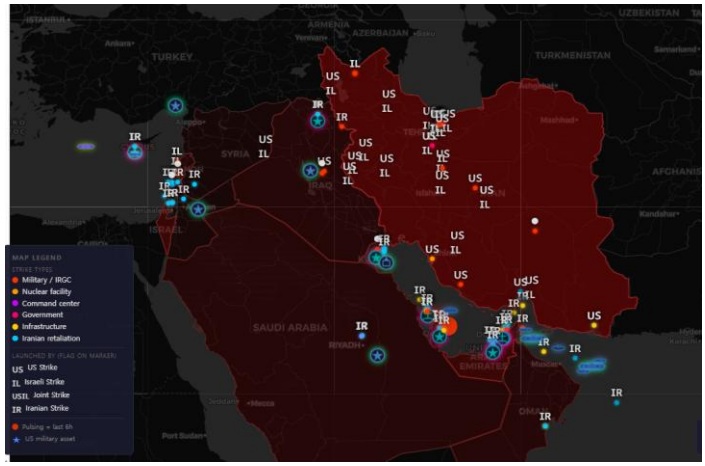
더불어 하메네이 사후 최고 종교지도자 후계 구도에서도 온건파보다는 기존보다 더욱 강경한 인물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모즈타바 하메네이(하메네이 차남)를 유력 후보(Polymarket 기준 70%)로 주목하고 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공식 직함이 없었으나, 배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강경 보수주의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시나리오, 즉 이란 내부에서 온건 정부가 수립되어 휴전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이란 내부에서 현 정권에 대한 반발심이 어느 때보다 큰 것은 사실이다. 다만 2025년 1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혁명수비대에 의해 강경 진압된 이후 시위 세력은 이미 크게 위축된 상태다. 여기에 외부의 군사 공격이 더해지면 내부 결집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수뇌부에 한정된 정밀 타격이었으나 민간인 사상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반정부 감정보다 반미·반이스라엘 감정이 우세해질 가능성이 높다. 내부 갈등이 외세의 침략 앞에서 결집으로 전환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반복된 패턴이다.

미국의 중동 전쟁 역사가 주는 교훈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미국(및 이스라엘)의 대응이다. 현재까지 미국의 지상군 투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애초에 전력 편성 자체가 지상군 투입을 배제한 단기 정밀 타격을 목표로 중동에 집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군력만으로는 저항이 거센 상대의 체제를 전복시키기 어렵고, 이란 측의 보복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당초 의도한 단기 정밀 타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미국이 21세기에 치른 중동 전쟁들이 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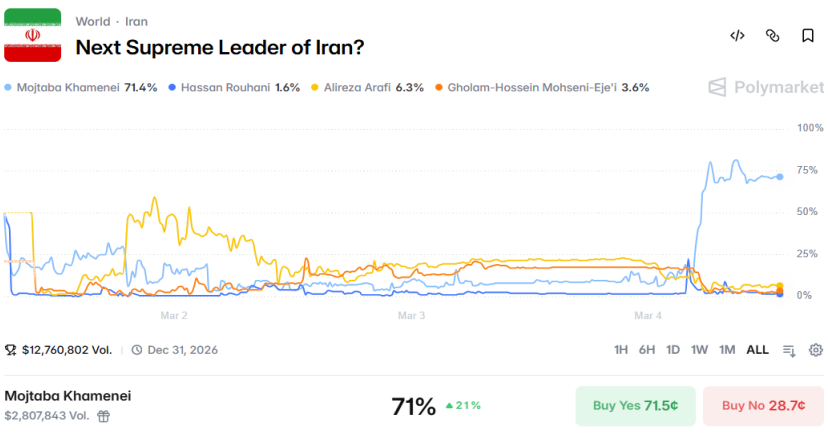
방증한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약 한 달여 만에 탈레반 정권을 축출하며 신속한 승리로 보였으나, 이후 20년간 미군이 주둔하며 미국 역사상 최장기 전쟁으로 전락했다. 전쟁 소모 비용은 2.3조 달러로 추정되며 2021년 철수 직후 탈레반이 재집권하며 원점으로 돌아갔다. 2003년 이라크 전쟁 역시 바그다드 함락까지는 3주에 불과했고, 부시 대통령이 주요 전투작전 종료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후 8년간 내전과 반군 소탕에 시달렸고, 약 4,500명의 미군이 전사했으며 총 비용은 2조 달러를 넘겼다. 결국 미국은 2011년 이라크에서 전투부대를 철수했다. 주목할 점은 두 전쟁 모두 초기부터 대규모 지상군이 투입되었음에도 장기 소모전으로 귀결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란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보다 인구, 국토 면적, 군사력 모두에서 더 큰 규모의 국가다. 지상군까지 투입한 아프간·이라크에서도 미국이 의도한 체제가 온전히 유지되지 못했다면, 공중 폭격과 미사일 공격만으로 이란의 신정 체제를 전복시키기는 더욱 어렵다. 이란의 보복이 장기화되고 걸프 산유국 피해가 확대될 경우, 작전 목표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지상군 투입을 포함한 전면전, 나아가 중동 전역으로의 확전 리스크까지 열어두고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림 1. 이란의 보복이 중동 전역으로 광범위하게 퍼지는 모습



자료: iranstrikemap

그림 2. 이란 최고지도자 후계자로는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주목



자료: Polymarket

2. 주식

국내 증시: 이란發 쇼크가 가져온 역사적 변동성

중동 전쟁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에 급락

KOSPI는 전주대비 -10.57% 하락한 5,583.9pt를 기록하였다. KOSDAQ은 전주대비 -6.40% 하락한 1,116.41pt를 기록하였다. 금주 한국 증시는 지난 주말 간 발생한 미국의 이란 공습 소식과 이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증시 쇼크를 유발하며 2거래일 연속 하락하였다. 다만, 수요일 이란의 군사력 약화 및 미국과의 휴전 가능성이 투심을 180도 변화시키며 증시는 급반등 추세로 전환하였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에 따른 유가 상승,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심리 확대, 신흥국 시장 약세의 패턴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내 증시는 26년 초부터 이어진 상승세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역시 대규모 나타나며 타국 대비 큰 낙폭을 보였다. 지난 3/3일에만 KOSPI 외국인투자자금이 5조 가량 이탈한 이후, 하락에 대한 공포가 애프터마켓부터 지수를 끌어내리며 일간 역대 최고 낙폭 기록(3/5, KOSPI -12.06%) 역시 갱신한 한 주였다.

주 초반 2거래일 간 대부분의 업종이 큰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방산 업종 일부기업은 중동 전쟁의 수혜주와 단기적 투기자금 영향에 지수와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기도 했다. 반등 흐름이 나타난 3/5일의 경우 전 업종 상승 속 KOSPI 반도체와 KOSDAQ 시총 상위주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자본재(-2.7%), 에너지(-5.1%), 보험(-5.3%) 등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반면 자동차(-17.5%), 철강(-15.9%), 화학(-15.6%) 섹터 등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국내 증시 차주 전망: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주시, 증시 방향성 탐색 국면

방향성 탐색 국면, 중동 리스크 해소 여부 주목

차주 국내 증시는 중동 전쟁의 진행상황을 주시하며 방향성 탐색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호세인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사망 이후 모즈타바 하메네이 차남이 후계자로 유력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강경한 태도와 지상전 장기화 시나리오는 증시의 하방 압력이다. 다만, 이란 미사일 군사력 약화 우려 속 이란-CIA의 접촉에 의한 조기 휴전 가능성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 정상화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차주 주요 이벤트로는 국내에서는 한국 4Q GDP 잠정치 발표(10일), 인터배터리 2026(11~13일) 행사가 있고 글로벌에서는 미국 CPI 발표(11일 밤, 한국시간), OPEC 월간 원유시장 보고서 공개(11일)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장의 시선은 이란 최고지도자 선출에 따른 중동 전쟁의 전개와 CIA-이란 간 협상 가능성에 집중, 기타 이벤트에 대한 증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중국 증시: 경제성장률 목표치 4.5~5.0%로 하향 조정

글로벌 위험자산 회피 심리 작용, 양회 내용은 시장 예상에 부합

상해종합지수는 전주대비 -1.30% 하락한 4,108.57pt를 기록하였다. 홍콩 항셍지수는 전주대비 -4.92% 하락한 25,321.34pt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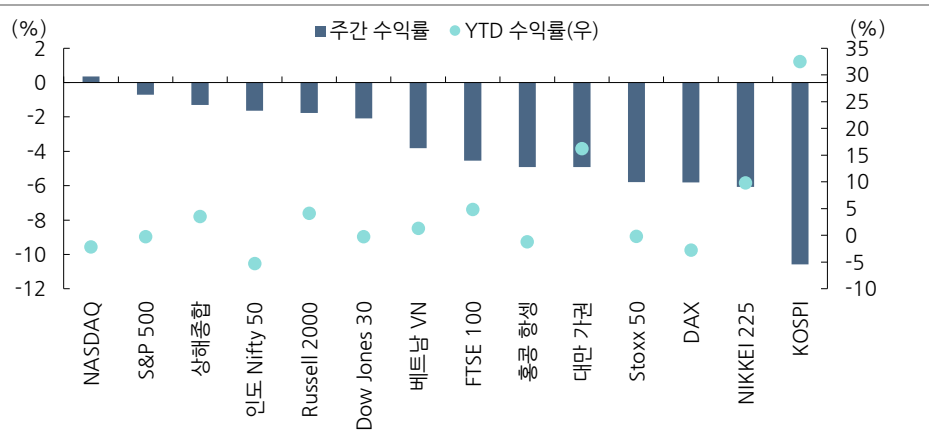
금주 상해 증시는 미국-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하방압력으로 작용했으나, 정유화학 섹터 및 운송, 방산주 중심으로 급등과 급락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상해증시는 아시아 타국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나타냈다. 주중 발표된 2월 제조업 PMI 지표는 49.0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위축을 나타냈으나, 증시의 방향성은 양회 경계감과 함께 중동 긴장감의 변화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다.

한편, 금주 개막한 양회에서는 2026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4.5~5.0% 수준으로 설정하며 공식적 목표치의 하향조정이 확인되었다. 이번 수치는 1991년 이후 3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앞선 3년 간 5% 안팎으로 목표치를 발표했던 것과 다소 상이하다. 다만, 목표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가운데 증시는 현실적 목표에 대한 재정 부담감 완화를 무난하게 받아들였고 국방비 증액 이슈를 소화하며 방산업종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홍콩 항셍지수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욱 민감한 모습을 보이며 약세 마감했다. 에너지주가 급등했으나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고, PMI 데이터 부진이 약세 압력을 더하는 모습이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대한 공급 우려에 에너지, 운송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카타르 제련소 가동 중단 이슈에 알루미늄주가 상승하였다. 반면, 반도체, 금융 등 주요 업종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빠르게 일어나며 홍콩 증시는 상해증시를 언더퍼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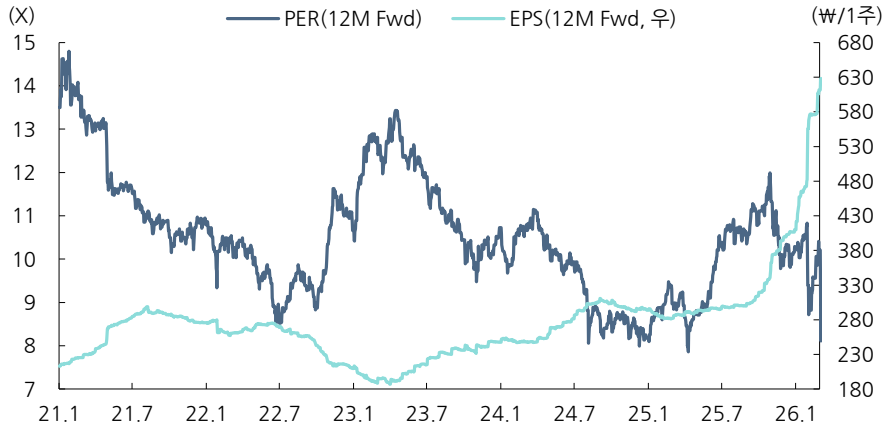
상해 증시는 에너지(+11.3%), 유틸리티(+3.1%), 산업재(+0.8%) 등에서 전주대비 상승 마감하였다. 반면, 정보기술(-5.5%), 헬스케어(-5.0%), 경기소비재(-4.8%) 등은 전주대비 하락 마감하였다.

그림 1. 증시별 주간/YTD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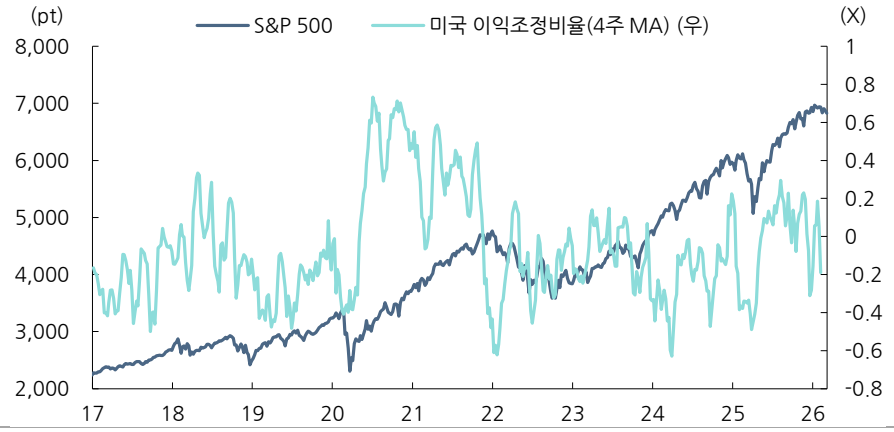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KOSPI 12M Fwd PER, E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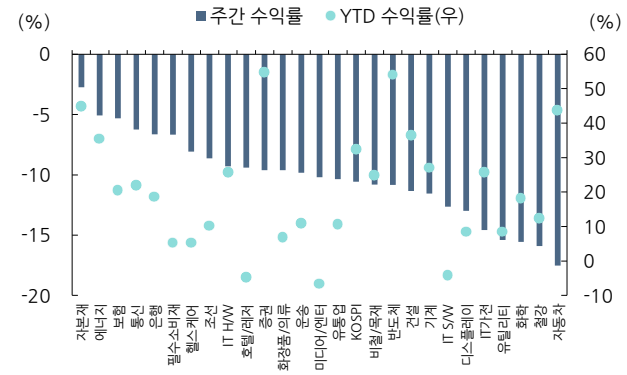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S&P 500 주가 추이 및 이익조정비율(4주 MA)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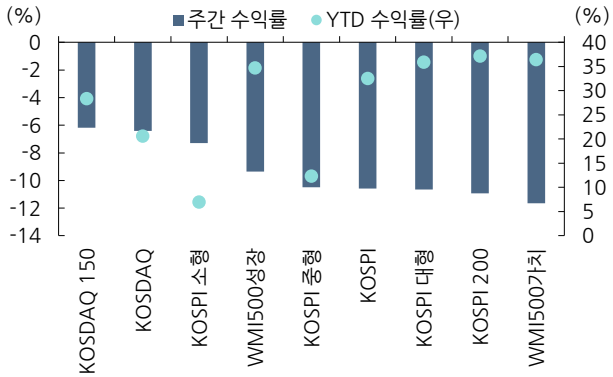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KOSPI 업종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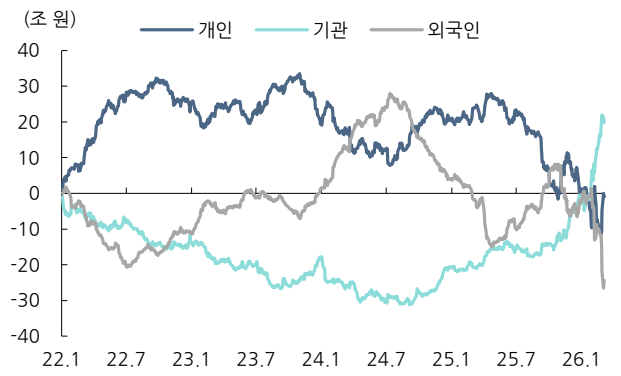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KOSPI 스타일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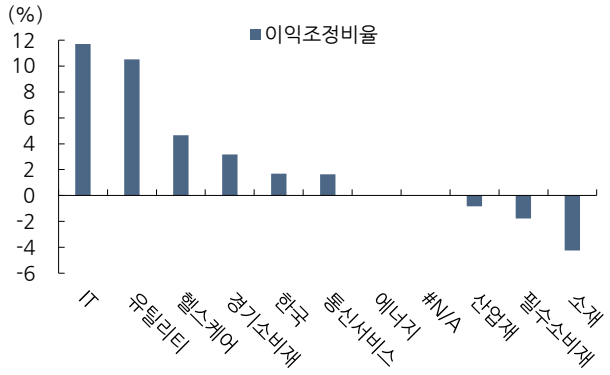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국내 증시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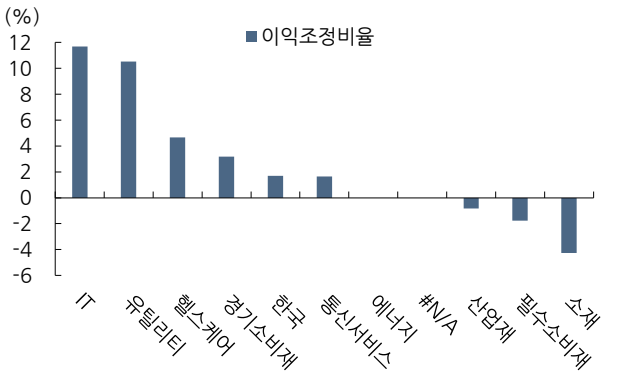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한국 증시 업종별 이익조정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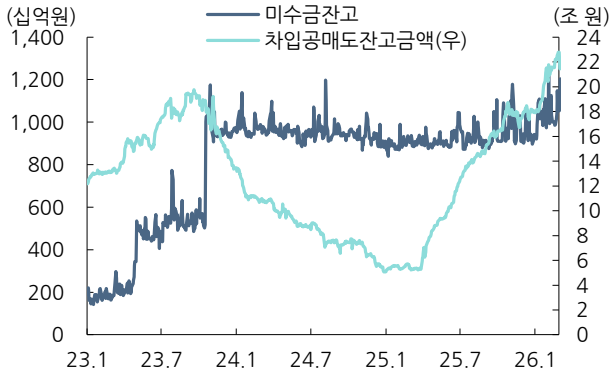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한국 증시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증권담보융자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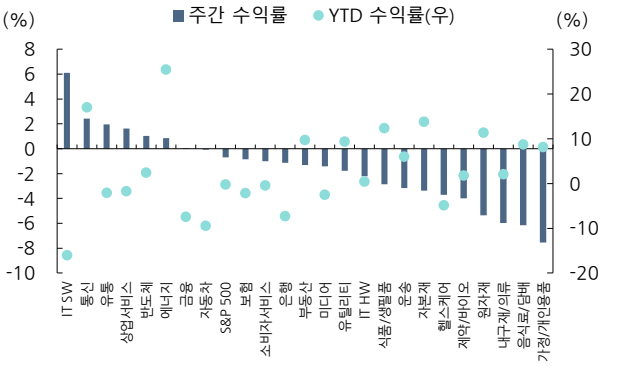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한국 증시 미수금잔고 및 차입공매도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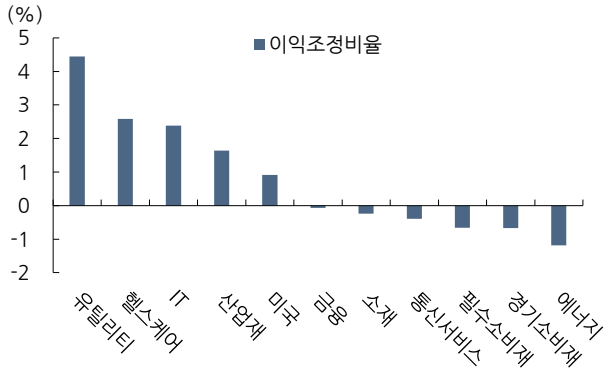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S&P 500 업종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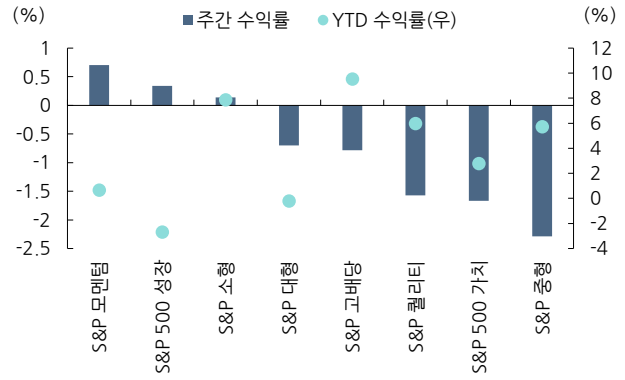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S&P 500 업종별 이익조정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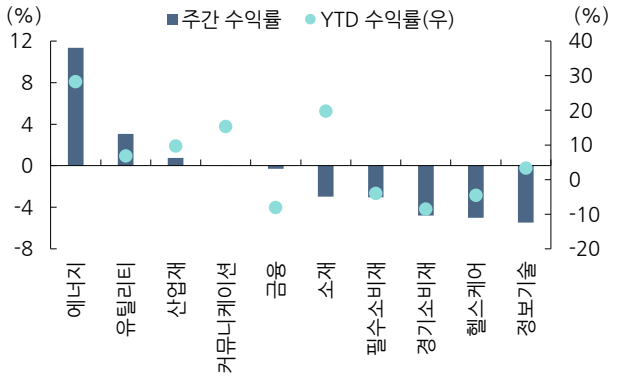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 S&P 500 스타일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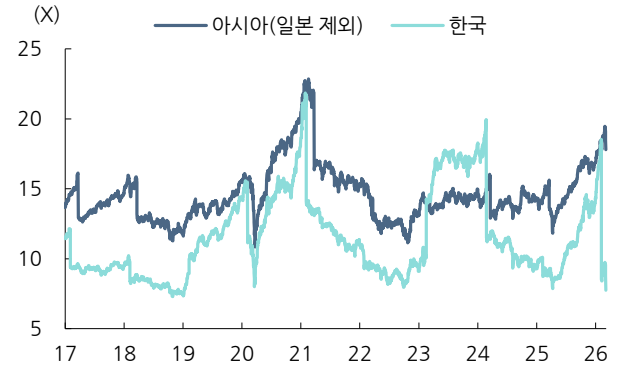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3. 상해종합지수 업종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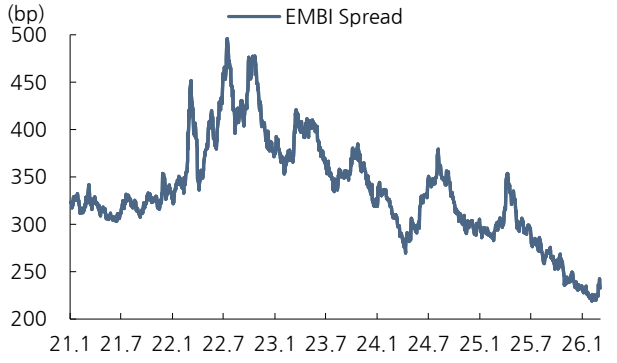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4. 아시아(일본 제외), 한국의 PER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5. EMBI Spread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증시: 이란 전쟁 발발에도 불구 브로드컴 실적 서프라이즈로 상쇄

미국-이스라엘 연합의 이란 군사작전 'Operation Epic Fury'가 2월 28일 개시되며 금주 글로벌 시장은 극심한 지정학적 충격에 직면하였다. 3월 2일(월) S&P 500은 장중 -1.2%까지 하락하였으나,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 마감하였다. 3월 3일(화)에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과 걸프 지역 미군 기지 피격 소식이 전해지며 다우존스가 장중 1,200pt 이상 급락, 종가 기준 -0.83%를 기록하였다. 나스닥은 동일 -1.02% 하락하였다.

그러나 다음날인 3월 4일(수)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호위 및 보험 제공 발표, ADP 고용 서프라이즈, 그리고 장 마감 후 브로드컴의 사상 최대 매출 실적 발표가 겹치며 미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다. 그간 AI 우려로 낙폭이 심했던 반도체 섹터가 시장 반등을 주도하였으며, 마이크론, AMD, 브로드컴과 엔비디아도 동반 상승하였다.

금주 시장의 핵심 특징은 지정학적 충격과 AI 펀더멘털 모멘텀이 동시에 작용하며 극심한 일중 변동성을 연출한 반면, 종가 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등락에 그쳤다는 점이다. 한국과는 달리, 전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으로 발돋움한 미국 입장에서 전쟁이 설사 장기화되더라도 미국이 패전할 가능성은 없고, 물가 및 금리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AI 구현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서사가 이란 전쟁보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더 지배적인 내러티브라는 평가가 시장의 현 국면이다. CBOE VIX는 화요일 25.40까지 상승하였으나, 2025년 4월 관세 충격 당시의 52.3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현 상황에서는 시장이 분쟁의 단기 종결을 기본 시나리오로 상정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방산, 에너지, 디지털자산 강세 / 반도체, 여행, 항공, 레저 약세

업종별로는 에너지, 방위산업, 유조선·탱커, 금·귀금속,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바이오·제약, 디지털자산이 강세를 보인 반면, 항공, 여행·레저, 반도체, 산업재·기계, 금융, 필수소비재, 자동차, 부동산, 소형주는 약세를 나타내었다.

에너지 섹터에서는 엑슨모빌, 셰브론, 코노코필립스 등 석유 대형주가 호르무즈 봉쇄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로 급등하였고, 프론트라인, DHT홀딩스 등 유조선·탱커주와 금 가격 역시 전쟁 프리미엄을 반영하며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방위산업에서는 록히드마틴, 노스롭그루먼, RTX 등 전통 방산주에 더하여 팔란티어가 방산 AI 수요 확대 기대에 힘입어 급등하였으며, 사이버보안 업종의 크라우드스트라이크, 팔로알토네트웍스도 지정학 긴장에 따른 수혜로 강세를 이어갔다.

반면, 항공주는 중동 노선 전면 중단과 유가 급등에 따른 연료비 부담이라는 이중 악재에 급락하였고, 부킹홀딩스, 에어비앤비, 크루즈 업체 등 여행·레저 관련주도 글로벌 관광 수요 위축 우려에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반도체 섹터에서는 브로드컴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AI칩 수출 허가제 검토 보도가 엔비디아를 비롯한 업종 전반에 하방 압력을 가하였으며, 캐터필러, GE에어로스페이스 등 산업재와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투자은행도 공급망 차질 우려 및 금리 환경 불확실성 속에 급락하였다.

브로드컴, 사상 최대 실적과 $1,000억 AI 반도체 매출 가시권 선언

3월 4일 장 마감 후 발표된 브로드컴의 2026 회계연도 1분기(2026년 2월 1일 종료) 실적은 기대치를 소폭 상향하였다. 실적 자체는 무난했다고 보이나, 어닝콜에서 ASIC 시장의 성장성 및 낙관적인 가이던스를 내놓으며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는 약 5% 상승하였다.

가장 주목할 수치는 커스텀 AI 반도체 칩 매출이었다. 브로드컴 혹 탄 CEO는 "커스텀 AI 가속기와 AI 네트워킹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성장을 견인하였다"고 밝혔다. 이후 2분기, 연간 가이던스 또한 시장의 기존 예상치를 상회한 점도 주가에 긍정적이었다. 이후 어닝콜에서 브로드컴 CEO는 “오직 칩에서만 2027년 AI 매출 $1,000억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시권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위한 공급망도 이미 확보하였다"고 선언하였다. 현재 월가가 2027년 브로드컴 전체 매출을 $1,360억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AI 칩 매출만으로 $1,000억이라는 수치는 기존 컨센서스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할 수 있는 규모이다.

구체적으로 혹 탄은 앤스로픽의 $100억 규모 TPU 주문 진행 상황을 재확인하였으며, 메타의 MTIA 커스텀 가속기 로드맵이 "살아있고 건재하다"고 강조하였다. 메타가 2027년 이후 수 기가와트 규모의 커스텀 가속기 용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브로드컴이 유리기판 등 차세대 패키징 기술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는 점은 NVIDIA의 강세에도 불구 ASIC 시장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Operation Epic Fury: 28년 만의 중동 대규모 군사작전과 시장의 계산법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지도부, 혁명수비대(IRGC) 시설을 대상으로 대규모 합동 군사작전을 개시하였다. 작전 개시 이후 5일간 약 2,000회 이상의 공습이 수행되었으며,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사실상의 정권 교체"를 작전 목표로 명시하였으며, 루비오 국무장관은 "가장 강력한 타격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쟁이 최대 한 달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란은 이스라엘, 걸프 지역 미군 기지, 아마존 바레인 데이터센터 등에 보복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감행하였다. 리야드 주재 미국 대사관이 드론 피격을 당하였고, 쿠웨이트 항에서는 미군 예비역 6명이 전사하였다. 헤즈볼라도 텔아비브를 공격하며 분쟁이 레바논으로 확전되었다. 아마존웹서비스의 바레인 및 UAE 데이터센터 3곳이 드론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다.

시장에 대한 가장 직접적 영향은 에너지 시장을 통해 전달되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협하며 해운 대기업 Maersk가 해협 통과를 전면 중단하였고, 유조선 운임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전 세계 소비 원유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는 점에서, 장기적 봉쇄 시 유가 $100 돌파 시나리오가 부상하고 있다. 일부 원자재 리서치는 “1970년대 아랍 석유 금수 조치와 이란 혁명의 이상의 심각한 시나리오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한편,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 및 장기적 시장 충격에 다소 낙관적인 분위기다. 특히, 과거 1990년이나 2022년처럼 심각하고 지속적인 수요 측면에서의 유가 교란이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의 이슈에는 공급 부분에서 시간이 지나면 공백에 의해 대응하고, 그에 따른 시장 영향력은 미미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시장에서 우려하는 핵심 리스크 시나리오는 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을 재점화시켜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를 차단하는 경우이다.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후퇴에 금리인하 기대를 받던 성장 섹터가 다소 부진한 분위기다. 더불어 ISM 제조업 PMI에서 투입 가격 지수가 급등한 점 역시 스태그플레이션적 우려를 가중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시에 15% 글로벌 관세 발효를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관세와 유가의 이중 인플레이션 압력이 연준의 정책 딜레마를 한층 심화시킬 전망이다.

미국 증시 전반에 대한 시스템적 리스크는 제한적인 것으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다. 다만 분쟁이 트럼프가 시사한 4주를 초과하여 장기화되거나, 호르무즈 해협 교통이 지속적으로 차단될 경우, 에너지 공급 충격이 실물 경제와 기업 이익에 미치는 2차 효과가 시장의 계산법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

차주 핵심 이벤트: 2월 CPI(3/11), 인터배터리(3/11~13), 1월 PCE(3/13)

3/11: 2월 CPI — 전쟁·관세 이중 충격 속 인플레이션 향방 관심

3월 11일 발표되는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차주 최대 시장 이벤트이다. 1월 CPI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4%를 기록하였으며, 에너지 가격이 -1.5% 하락하며 상승폭을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2월 이후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이란 전쟁 발발에 따른 브렌트유 52주 신고가 경신, 트럼프 행정부의 15% 글로벌 관세 발효, 그리고 ISM 제조업 PMI 투입 가격 지수 급등이 동시에 작용하며 향후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물론 해당 요소들의 CPI 반영에는 통상 2개월 이상의 시차가 존재하여 2월 수치 자체에는 전쟁 효과가 제한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으나, 관세 효과는 이미 소매 가격에 전이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가 상승 반전 시 시장은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충격이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이 재가속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을 수 있으며, 이 경우 3월 FOMC 인하 기대가 급격히 후퇴하면서 금리 민감 섹터의 하방 압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3/11~13: 인터배터리 2026 — AI 시대 배터리 산업의 최대 이벤트

서울 코엑스에서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는 인터배터리 2026은 688개사, 2,330개 부스, 약 80,000명의 방문객이 참가하는 글로벌 최대 배터리 산업 전시회이다. 금년 전시의 핵심 주제는 'AI 시대의 배터리'로, 삼성SDI는 "AI thinks, Battery enables"라는 테마 하에 AI 데이터센터용 초고출력 UPS 배터리와 BBU 솔루션을 최초 공개할 예정이며, SK온은 ESS·로보틱스·차세대 셀 설계를 아우르는 '종합 배터리 제조사'로의 전환을 선언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력망용 LFP 기반 ESS를 출품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주목할 주제는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 급증에 따른 UPS·백업 배터리 수요 확대, ESS 시장의 구조적 성장, 그리고 LFP 기술의 주류화라는 세 가지 메가트렌드가 전시를 관통하는 핵심 서사이며, 데이터센터의 전력 병목 및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 확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저장 기술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된다.

3/13: 1월 PCE — FOMC 직전 최종 인플레이션 단서

3월 13일 발표되는 1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3월 18일 FOMC 회의 전 블랙아웃 기간 진입 직전의 마지막 핵심 인플레이션 지표이다. 1월 CPI에서 근원 지표가 2.0%까지 하락한 바 있어, PCE에서도 유사한 둔화 추세가 확인될 경우 연준의 '임무 완수' 내러티브에 결정적 뒷받침이 될 것이다. 그러나 2월 27일 발표된 1월 PPI에서 헤드라인이 전월 대비 +0.3%를 기록한 점, 특히 의료 서비스 등 PCE 산출에 직접 투입되는 PPI 세부 항목들의 동향이 핵심 변수이다. 3월 11일 CPI와 13일 PCE, 이틀 간격으로 발표되는 두 인플레이션 지표가 엇갈리거나 모두 상승 반전할 경우, 유가 충격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1월 데이터에서조차 인플레이션이 재가속되고 있다는 해석이 우세해지며, 연준의 '장기 동결' 시나리오가 시장의 기본 전제로 재설정될 리스크가 존재한다.

표 1. MSCI AC World 업종별 주요 지표

업종	업종별 EPS 변화율 (%)				컨센서스 추이 (%)	업종별 수익률 (%)				지수 추이 (%)
	1W	1M	3M	YTD		1W	1M	3M	YTD	
글로벌(M. AC World)	0.3	-0.1	5.9	4.9		-2.6	0.4	1.6	0.9	
에너지	1.7	0.8	-2.7	-2.6		1.5	6.8	19.8	21.8	
소재	1.8	3.8	13.3	11.5		-4.4	4.2	16.8	13.0	
자본재	0.3	0.8	6.1	4.6		-3.5	3.3	13.2	12.9	
상업/전문서비스	-0.3	-0.2	1.8	1.3		0.2	0.8	-5.9	-7.5	
운송	1.0	1.6	2.3	1.9		-1.4	1.0	7.1	7.2	
자동차/부품	-1.5	-4.5	3.4	1.7		-4.7	-0.7	-4.6	-9.3	
내구소비재/의류	0.7	1.2	2.1	2.2		-6.7	-2.5	-8.3	-7.5	
소비자 서비스	-0.4	-0.8	1.8	1.7		-3.0	-3.1	-4.6	-7.4	
소매	1.1	-2.0	3.0	2.4		0.2	-4.3	-4.8	-4.8	
식품/필수품 소매	-0.6	0.9	1.9	3.2		0.5	1.2	10.1	11.4	
식품/음료/담배	0.4	0.3	2.5	1.3		-3.8	-1.2	7.8	6.9	
가정용품/개인용품	0.2	2.5	4.1	1.0		-5.2	-2.3	7.2	6.2	
헬스케어 장비/서비스	-0.2	-3.0	1.6	1.1		-1.9	0.5	-4.4	-4.2	
제약/생명공학/생명과학	0.2	2.1	0.9	0.5		-1.1	-0.2	4.8	2.4	
은행	-0.2	0.1	5.0	3.5		-5.4	-4.4	1.8	-0.8	
기타 금융	-0.5	-1.1	2.9	2.1		-2.5	-2.9	-6.7	-8.2	
보험	-0.5	0.8	3.4	2.9		-3.6	-2.9	-0.2	-3.1	
소프트웨어/서비스	-1.3	-3.0	0.2	0.9		1.8	2.8	-19.5	-19.5	
기술 하드웨어/장비	1.5	3.1	20.5	18.8		-6.3	-0.6	1.8	3.4	
반도체/장비	1.8	-0.4	24.5	17.8		-4.3	4.5	5.7	6.4	
통신서비스	-0.3	0.7	7.5	7.8		0.2	4.0	12.4	10.9	
미디어/엔터	-0.5	-2.5	-0.9	-1.3		0.3	-4.0	-3.9	-4.5	
유틸리티	-1.2	-0.4	2.2	1.8		-1.9	5.8	10.7	9.6	
부동산	-1.1	-9.9	-15.4	-16.1		-0.3	5.9	9.1	8.8	

자료: LSE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표 2. S&P500 업종별 주요 지표

업종	업종별 EPS 변화율 (%)				컨센서스 추이 (%)	업종별 수익률 (%)				지수 추이 (%)
	1W	1M	3M	YTD		1W	1M	3M	YTD	
미국(S&P500)	0.3	0.4	4.1	3.5		-0.6	1.0	-0.5	-0.9	
에너지	-0.3	-0.9	-5.3	-4.9		1.9	6.5	22.7	25.8	
소재	0.8	2.2	5.8	6.4		-2.4	3.1	15.4	12.5	
자본재	0.5	0.6	2.2	2.5		-0.6	5.5	15.0	14.6	
상업/전문서비스	-0.5	-0.5	1.3	1.3		1.5	0.9	-3.2	-3.6	
운송	0.0	0.0	3.4	3.0		-0.7	1.4	7.4	8.0	
자동차/부품	0.1	-0.4	6.1	7.0		-1.3	1.2	-8.7	-15.2	
내구소비재/의류	0.2	1.4	-1.9	3.0		-4.8	0.5	0.2	4.9	
소비자 서비스	-0.1	-0.3	2.4	2.3		-2.8	-1.3	-0.5	-3.9	
소매	-0.2	-2.1	-0.7	1.1		2.6	-2.4	-3.3	-3.4	
식품/필수품 소매	-0.5	-0.7	1.3	1.0		2.0	1.6	12.2	14.7	
식품/음료/담배	0.1	-0.3	1.2	0.9		-3.2	-1.2	11.5	10.4	
가정용품/개인용품	0.0	0.2	0.8	1.0		-3.7	0.2	12.1	9.8	
헬스케어 장비/서비스	0.0	-0.5	1.6	1.6		-1.1	1.9	-3.7	-3.5	
제약/생명공학/생명과학	0.0	0.5	-1.7	-1.4		0.3	0.9	6.2	3.1	
은행	0.4	0.4	3.7	3.7		-3.2	-6.3	-4.8	-8.1	
기타 금융	-0.2	-0.3	2.4	2.7		-1.6	-2.7	-7.9	-9.0	
보험	0.0	0.1	1.7	1.9		-0.3	-0.8	-0.8	-2.6	
소프트웨어/서비스	0.0	-0.1	3.3	3.2		2.6	3.6	-19.0	-19.0	
기술 하드웨어/장비	0.2	0.7	9.4	9.4		-3.3	-2.3	-1.4	0.5	
반도체/장비	2.1	3.3	17.7	10.0		-1.9	4.9	-0.3	0.7	
통신서비스	-0.1	-1.2	9.8	10.0		4.6	7.0	19.9	18.6	
미디어/엔터	0.0	0.4	-1.2	-1.3		0.7	-3.7	-1.3	-2.4	
유틸리티	0.0	0.2	1.8	1.8		0.1	9.1	10.0	9.8	

자료: LSE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자연어 기반 미국 주식 Weekly Outlook

Weekly Comment

수익률 상승 섹터 - 정보기술, 에너지, 임의소비재 등

수익률 하락 섹터 - 소재, 필수소비재, 헬스케어 등

▷ **NVDA 실적 이후 개별 이벤트 종목으로 투심 분산 - NFLX(+17.2%), APP(+14.3%)**

- NFLX는 WBD 인수 포기 결정 이후 14% 급등, APP도 Q4 매출 66% YoY 성장 및 소셜 플랫폼 진출 기대감에 강세
- 키워드 스코어 TOP5에 NVDA·MSFT·NFLX·MU·IBKR 포진, AI 반도체에서 미디어·핀테크로 관심 저변 확대

▷ **이란 지정학 리스크에 경기 방어 섹터, 에너지 선호 - XOM(신규편입 15위), 유틸리티(+1.8%)**

- 미-이란 군사긴장 고조로 유가 급등, 에너지 섹터 수혜로 XOM 신규 편입 15위 등장
- UK 사모대출 부실 여파로 IBKR(-8.7%) 하락, 금융(-0.4%)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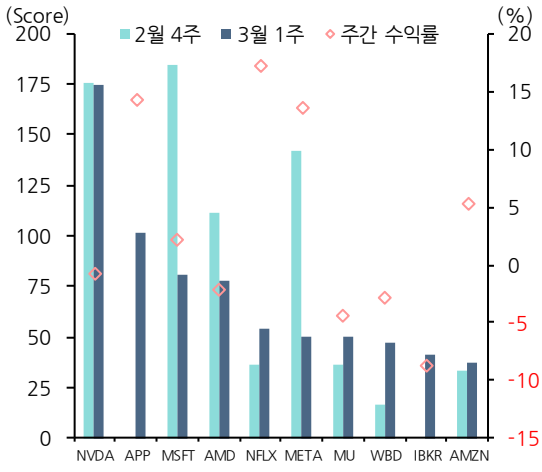
▷ **업종별 투심 극단적 양극화: 정보기술 소폭 반등(+1.5%), 섹터 로테이션 본격화**

- 전주(2월 4주) 정보기술 -2.2%, 금주 +1.5% 반등, 반도체 약세-소프트웨어 반등 흐름

3월 1주차 (26. 02. 27 ~ 26. 03. 05)

Word Cloud

주간 TOP 10 Keyword Score



신규 편입 종목

종목	순위	5D (%)	종목	순위	5D (%)
APP (앱러빈)	2위	+14.3	FIX (컴포트시스템즈)	35위	-6.3
IBKR (인터랙티브브로커스)	9위	-8.7	CEG (컨스텔레이션에너지)	36위	+2.6
XOM (엑슨모빌)	15위	+1.5	TGT (타겟)	39위	+4.9
SNDK (샌디스크)	21위	-13.2	FOX (폭스)	41위	+2.8
EBAY (이베이)	22위	+5.8	DELL (델)	44위	+20.6
AMP (아메리프라이즈)	34위	-2.9	TAP (몰슨쿠어스)	45위	-2.0

Hot Picks

종목	순위	5D (%)	종목	순위	5D (%)
NVDA (엔비디아)	1위	-0.8	MU (마이크론)	7위	-4.5
APP (앱러빈)	2위	+14.3	WBD (워너디스커버리)	8위	-2.8
MSFT (마이크로소프트)	3위	+2.2	IBKR (인터랙티브브로커스)	9위	-8.7
AMD (AMD)	4위	-2.1	AMZN (아마존)	10위	+5.3
NFLX (넷플릭스)	5위	+17.2	GOOG (구글(알파벳))	11위	-2.0
META (메타)	6위	+0.5	COIN (코인베이스)	12위	+13.6

업종별 수익률 및 관심도 TABLE

*언급량= 채도	2월 3주	2월 4주	월 1주
금융	▲1.5	▼2.0	▼0.4
부동산	▲0.0	▲0.7	▼1.2
산업재	▲1.7	▼0.1	▼2.9
소재	▼0.3	▲1.3	▼5.4
에너지	▲0.5	▲2.0	▲0.8
유틸리티	▼0.5	▲2.9	▼1.8
임의소비재	▲1.7	▼0.5	▲0.5
정보기술	▲1.5	▼2.2	▲1.5
커뮤니케이션	▲2.3	▲0.5	▼1.0
필수소비재	▼2.3	▲2.7	▼5.2
헬스케어	▼0.6	▲2.1	▼3.9
S&P500	▲1.1	▼0.4	▼0.7

편출 상위 12종목: IBM, PYPL, LLY, TER, PWR, MS, ADBE, BEN, INTC, MO, LI, ETN

주 1) 업종별 수익률 및 관심도 TABLE 셀 채도는 종목 언급 순위를 반영, 업종 수익률은 % 기준

주 2) 주간 TOP 10 Score는 집계된 키워드 기반 산출 점수. D-1주=0은 신규 편입 종

주 3) 각 주차는 D-1주 금요일~D주 목요일 기간을 기준점으로 설정

3. 채권

중동 리스크와 유가 급등 속 글로벌 채권시장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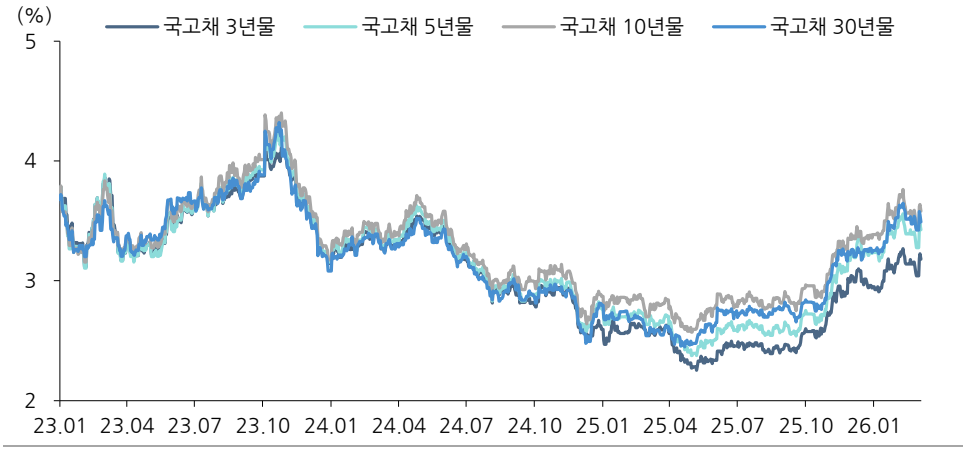
국내 채권시장은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에 따른 유가 공급 차질 전망에 한국 경기 둔화 우려 확대 속 약세 시현

금주 국내 채권시장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약세를 나타낸 이후 이란 전쟁 우려 완화에 강세로 전환했다. 주 초반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며 약세를 시현했다. 주 중반에는 한국은행의 시장 안정 의지를 시사하는 구두개입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며 약세 흐름이 지속됐다. 주 후반에는 이란이 미국과 종전 협상을 위해 접촉했다는 소식에 유가 상승세가 진정되며 강세로 전환했다. 주간 커브는 베어-플래트닝 국면으로 전개되었다.

미국 채권시장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및 견조한 경제지표 영향에 약세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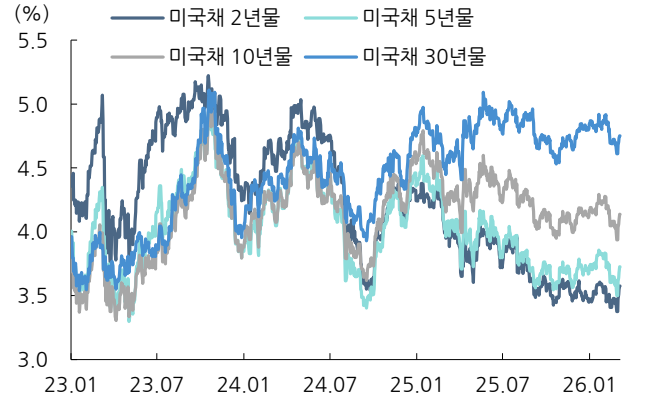
금주 미국 채권시장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 및 견조한 경제지표 영향에 약세 흐름을 나타냈다. 주 초반에는 미국과 이란 간 전면전에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및 미 2월 ISM 제조업 PMI 호조에 약세를 시현했다. 주 중반에도 전쟁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 2월 ADP 민간고용 및 ISM 서비스업 PMI가 예상치를 상회하자 약세를 지속했다. 주 후반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와 더불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에 약세를 나타냈다. 주간 수익률 곡선은 전주대비 베어-플래트닝을 시현했다.

그림 1. 주요 만기물별 국고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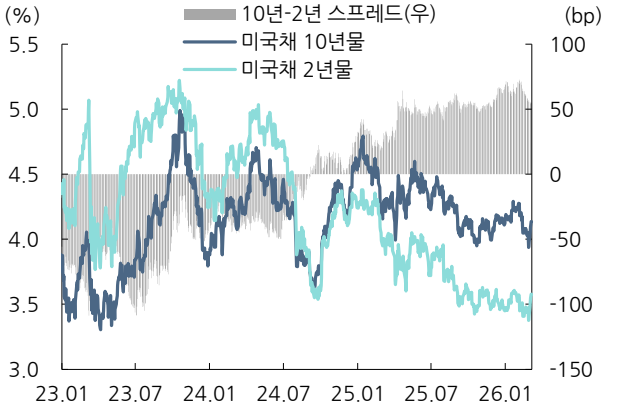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미 국채 주요 만기물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미 국채 장단기 금리 및 스프레드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4. 외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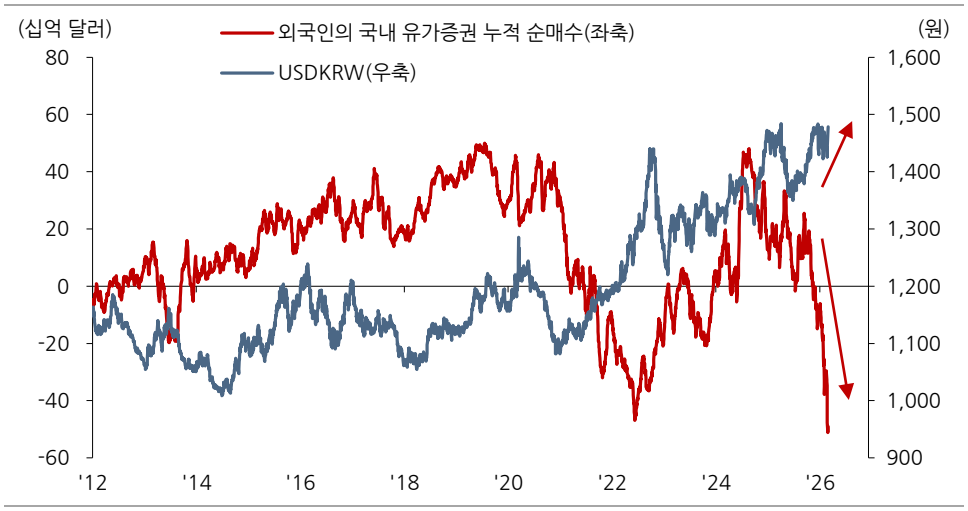
미-이란 사태의 국내 외환시장 영향

기본적으로 전쟁은 당사국들의 통화 가치를 절하시키는 요인이다. 비당사국인 한국의 원화 역시 중동 무력 분쟁에 대체로 약세로 반응해 왔다. 가장 최근 있었던 '25년 6월 이란-이스라엘·미국 12일 전쟁에서도 달러원 환율은(개전 직전 6/12 1,356원 → 6/23 1,380원) 24원 급등한 바 있다. 이는 한국의 높은 중동산 원유 수입 의존도와 분단 리스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미국의 이란 공격 전후로 외국인의 국내 유가증권 시장 순매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신흥국 포지션을 축소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 중 가장 좋은 성과를 보여온 국내 증시인 만큼, 중동발 리스크 회피 심리와 차익 실현 욕구가 맞물려 외국인 매도세가 강화될 경우 달러/원 환율의 상승 압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 글로벌 달러화 강세도 달러/원 환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중이다. 달러화의 강세 원인은 1)전쟁으로 인해 안전자산인 달러화의 수요 증가, 2)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미 국채 금리 상승으로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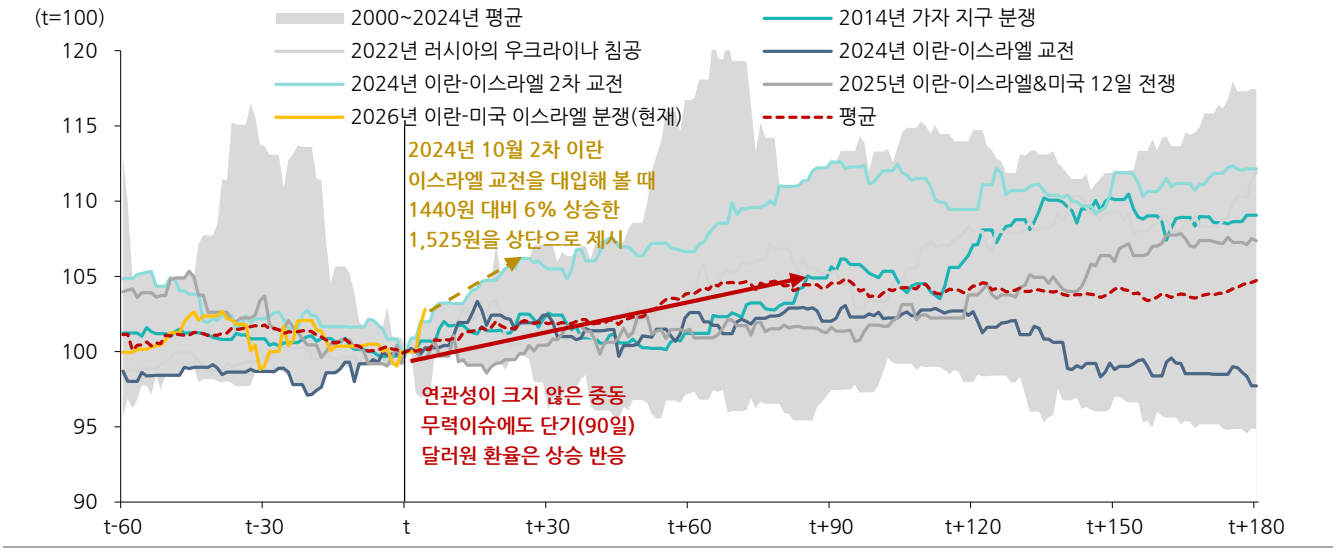
역사적으로 중동 무력 이슈 발생 후 달러/원 환율은 90일 전후까지 쉽게 레벨을 낮추지 못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번 분쟁의 장기화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달러/원 환율은 한동안 높은 수준의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쟁 격화 시나리오의 환율 상단으로는 1,525원을 제시한다. '24년 10월 이란-이스라엘 2차 교전 당시 20일간 달러/원 환율이 6% 가량 상승한 바 있는데, 이때는 트럼프 트레이드·한은 금리 인하 개시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번 분쟁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전례 없는 변수가 추가된 만큼, 분쟁 직전 수준(약 1,440원) 대비 유사한 폭의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림 1. 2012년 이후 외국인의 국내 유가증권(KOSPI 현선물+국채 선물) 누적 순매수와 달러원 환율



자료: infomax,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중동 무력 이슈별 달러/원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주: 음영은 2000년 2차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2006년 2차 레바논 전쟁, 2008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2012년 가자지구 폭격 2014년 가자 지구 분쟁, 2021년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사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22년 가자 지구 공습, 2023년 이-팔 전쟁, 2024년 이란-이스라엘 교전, 2024년 이란-이스라엘 2차 교전, 2025년 이란-이스라엘&미국 12일 전쟁

5. 부동산

매매가격 조정 흐름, 전월세 매물 부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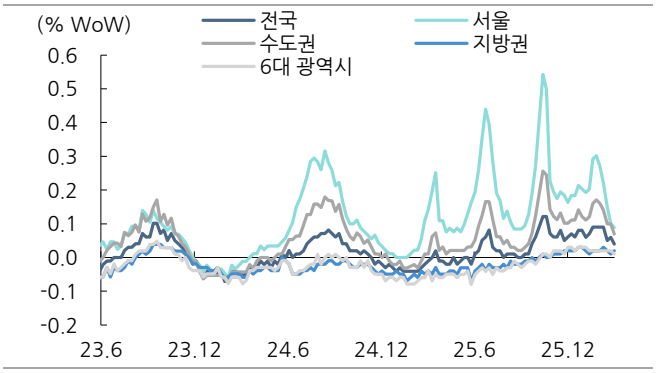
주요 상급지 매매가격 낙폭 확대, 중·저가 및 실수요 지역은 상승세

3월 첫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서울 매매가격은 0.09% 상승하며 5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강남3구와 용산의 하락은 2주 연속 이어졌으며, 해당지역 낙폭은 확대되었다. 반면 강서, 양천, 성동, 광진 등 중·저가 및 실수요 지역은 상승세를 유지했고, 경기권에서도 용인, 광명, 화성등이 오름폭을 이어가며 상급지 조정과 중저가 강세의 차별화 장세가 더욱 뚜렷해진 한 주였다. 한편, 매매시장의 조정 흐름과 달리 전·월세 시장은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아실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한 달 새 16% 감소하며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감소했다. 양도세 중과 재시행을 앞두고 임대 공급은 오히려 위축되면서, 매매가격 하락과 전·월세 부담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적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화성, 용인 강세 속 세종시 매매가격 하락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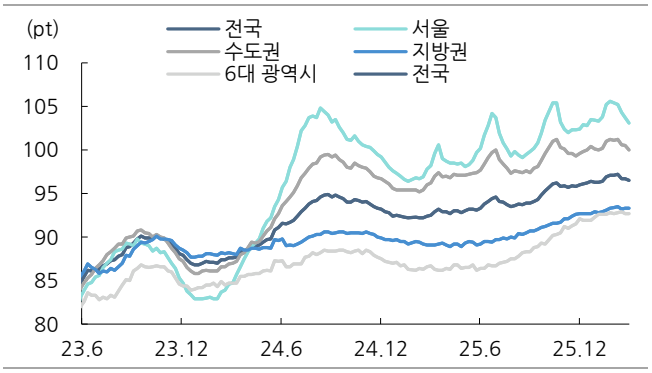
매매시장의 상승 지역은 102개를 기록하며 전주 103개 지역 수 대비 소폭 감소했다. 세종시의 등락률은 -0.03%로 전주 +0.02% 대비 하락 전환하였다. 한편 강북(+0.13%)의 경우 동대문구(+0.20%), 성북구(+0.19%), 성동구(+0.18%) 등의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 강남(+0.05%) 역시 강서구(+0.23%), 양천구(+0.20%), 영등포구(+0.17%) 등에서 매매지수가 상승하였다. 인천(+0.02%)의 경우 연수구(+0.06%), 부평구(+0.04%), 미추홀구(+0.03%) 등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편 경기권에서는 수지(+0.44%), 하남(+0.33%), 동탄(+0.28%) 등 성남·용인 및 화성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다.

그림 1. 주간 국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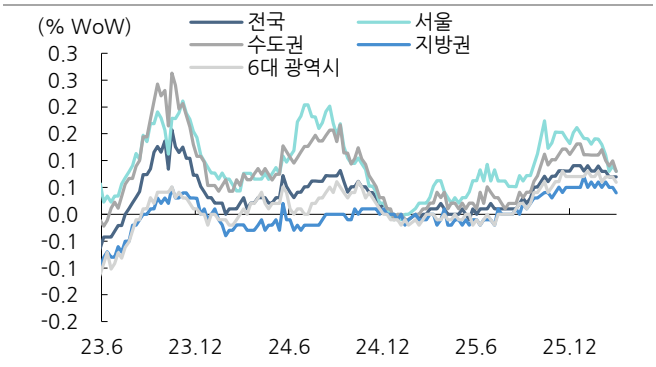
자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주간 국내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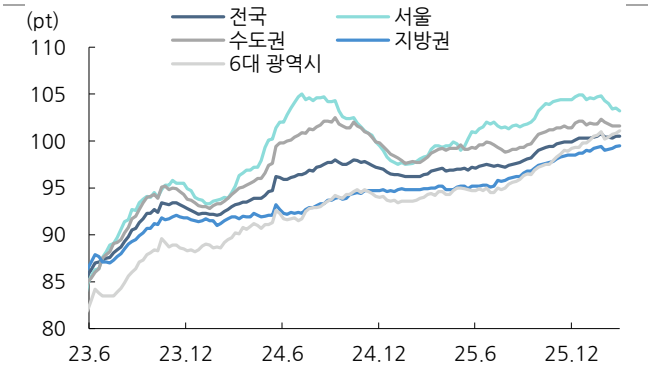
자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주간 국내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등락률



자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주간 국내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 추이



자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신얼, 김경태, 최예찬, 강혜성)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상상인증권
sangsangin securities